『해 보긴 해봤어?』

최선을 다한 그 순간이 답이었다

✨프롤로그 – 자꾸 입에 감긴다

"해 보긴 해봤어?"

정주영 회장의 말로 알려진 이 말을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주 입에 올리고 있다.

성공 신화나 기업가 정신이 떠오를 법한 이 문장에서

나는 조금 다른 맛을 느낀다.

그건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식의 독려가 아니라,

오히려 잠시 멈춰 선 사람들에게 건네는 조용한 질문이다.

지쳐 있는 사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

"해보긴 했는데요…" 하고 작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저 슬며시 묻고 싶었다.

"진짜로… 해 보긴 해봤어?"

"그때의 너, 그 순간의 너, 정말 네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거 아냐?"

요즘은

‘잘해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성과를 내야 의미가 있다’는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어깨에 얹히는 시대다.

나도 그 무게를 겪여봤다

.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그건 꼭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다.

어설펐지만, 정말 해봤던 그날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래도 해봤다"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

그 몸과 마음이 몰입했던 하루하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때 짊어졌던 돌덩이는,

지나고 보니 짐이 아니라 집이었다.

이 책은

‘할 수 있어!’를 외치는 책이 아니다.

‘해야 돼!’라고 다그치는 책도 아니다.

그저 당신 옆에 앉아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묻고 싶을 뿐이다.

“해 보긴… 해봤어?”

�� 1부. 말만 하지 말고

1장. 그건 해본 게 아니야

“저도 해봤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은 의외로 가볍다. 해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해본 게 아닐 때가 많다.

발끝만 살짝 물에 담갔다가 “차갑네” 하며 돌아서는 것. 책 한 권의 서두만 넘겨보고 “별로네” 하며 덮는 것. 며칠 시늉만 하다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라며 도망치는 것. 이런 건 사실 해본 게 아니다. 그저 겉을 핥고 나온 것일 뿐이다.

진짜 해본다는 건 다르다. 차갑고 떨리더라도 허리까지 몸을 던져 넣는 것이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덜덜 떨려도 깊이에 자신을 맡겨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안다. 그 일이 내게 맞는지 아닌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해봤다”고 말할 때, 한 번 더 묻고 싶다.

“얼마나 들어갔는데?”

만약 발끝만 담그고 나온 거라면, 그것은 아직 해본 게 아니다. 허리까지, 아니 그 이상 깊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비로소 해본 것이다. 그리고 그 흔적은 몸과 마음에 분명 남는다.

2장. 노력했대… 진짜?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을 열어 보면, 의외로 텅 비어 있을 때가 많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종종 자기 위로가 되고, 변명의 포장지가 되기도 한다.

정말로 노력했다면, 그 흔적은 몸과 마음에 남는다. 밤늦게까지 눈을 비비며 버텼던 기억, 손끝이 저릿하도록 붙잡았던 도전, 더는 안 될 것 같아도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던 순간. 그런 게 쌓여야 비로소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 손대다 말고, “그래도 난 해봤어”라며 서둘러 결론 내린다. 잠시 애써 본 흔적을 크게 부풀려 스스로를 속인다. 그건 노력의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노력은 껍데기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무게처럼 삶 속에 새겨진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노력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묻고 싶다.

“정말? 어디까지 가봤는데?”

노력은 말이 아니라 체험이다. 땀과 눈물, 때로는 실패와 좌절까지 껴안은 시간의 흔적이다. 그 흔적이 없다면, 그건 아직 노력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3장. 기도했지만 움직이진 않았다

나는 기도했다.

간절히 바랐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내일은 달라지길 바랐다. 하지만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도만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될 수 있지만, 발걸음을 대신 내주지는 않는다. 나침반을 손에 쥔 채 제자리에 서 있으면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길은 걸어야 열린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기도했는데 안 됐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기도하면서, 너는 움직였니?”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설령 그 한 걸음이 작고 흔들리더라도, 그것이 기도가 현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움직이지 않은 기도는 공중에 흩날리는 메아리일 뿐이다. 반대로, 떨리는 발로라도 한 발 내디딘 기도는 길 위에 새겨진 울림이 된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지만, 발은 땅을 디뎌야 한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순간, 기도는 비로소 살아난다.

4장. 위탁이 아니라 위장이었다

“난 맡겼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난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진짜 위탁이 아니라 단순한 회피일 때가 많다.

위탁은 믿음이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더 큰 손에 맡기고도 여전히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위장은 다르다. 책임의 무게를 피하려고, 안전지대에 숨어버리는 것이다. 겉으로는 “맡겼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빠진다”를 외치는 것과 같다.

위탁은 무겁다. 맡긴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하니까. 망가져도, 어긋나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러나 위장은 가볍다. 남 탓을 하거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장하고 있는가?” 만약 마음 깊숙이 숨고 싶은 충동이 먼저라면,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위장이다.

진짜 위탁은 용기가 필요하다. 손을 놓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는 것, 결과를 남 탓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해본 자의 태도다.

5장. 망가질까 봐, 안 했다

나는 여러 번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선 수십 가지 이유가 흘러나왔다.

“망가지면 어쩌지?”

“다시 못 일어나면 어쩌지?”

“괜히 했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망가질까 봐 멈춘 그 순간,

나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정지된 사람이었다.

멈춰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나는 달라지지 않고,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망가져 본 순간이 내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상처를 입고, 주변이 흩어져 버린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망가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망가지면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내 몸을 흔들고, 내 마음을 다시 세운다.

부서짐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단해질 기회를 잃는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망가짐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망가짐이다.”

6장. 해야 할 건 알았지만 피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미뤄서는 안 되는지,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피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지.”

“준비가 부족해.”

핑계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알면서도 피하는 건 더 고통스럽다.

몰라서 못한 것보다,

알고도 외면한 것의 무게가 훨씬 크다.

잠들기 전,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있었다.

“넌 알고도 안 했지?”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결국 나는 스스로를 속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야 할 걸 알면서도 피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변명에 갇힌다.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마음은 굴뚝같았는데…”

그 어떤 설명도 결국 회피의 흔적일 뿐이다.

나는 배웠다.

알면서 피한 한 발짝은,

실패한 열 걸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7장. 누가 안 알아줘도, 먼저 해봤어야 했다

나는 늘 주위를 살폈다.

“이걸 하면 누가 알아줄까?”

“성과가 눈에 보여야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갇힌 채,

내 발걸음을 멈출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다.

의미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살았다면 그 순간 이미 충분했다.

내가 먼저 해봤다면,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더라도,

그때의 나는 달라졌을 것이다.

몸이 부딪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건

박수보다 더 오래 남는 흔적이다.

나는 뒤늦게 후회했다.

“그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해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한다는 걸.

누군가 봐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삶은 이미 흘러간다.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뛰어들어 흔적을 남기는 편이 낫다.

8장. 해봤더니, 뭐라도 시작되더라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었다.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머릿속엔 부정적인 말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막상 해보니,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대단한 성과는 아니었다.

누가 놀라 줄 만한 결과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멈춰 있던 바퀴가 조금씩 구르기 시작했고,

흐르지 않던 물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건 작은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길을 연다.

처음엔 발자국 하나였던 흔적이,

나중엔 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다.

“해봤더니, 뭐라도 시작되더라.”

그게 전부다.

결과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

해본 순간부터 이미,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9장. 이젠 핑계도, 겉옷도 벗는다

처음엔 변명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

“상황이 안 맞아서 그랬어.”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핑계들이

내 몸을 두껍게 덮고 있었다.

그 옷은 따뜻해 보였지만,

사실은 나를 숨기는 가리개였다.

겉옷을 걸친 채 나는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보고 나니 달랐다.

핑계의 옷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움직여 본 순간, 나는 안다.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의 차이는

겉옷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걸.

이제 나는 벗어야 한다.

시간 탓, 상황 탓, 능력 탓—

그 모든 변명의 옷을 하나씩 벗어야 한다.

벗고 나면, 남는 건

벌거벗은 나 자신뿐이다.

그 모습은 초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숨지 않고 서 있다.

핑계 대신 정직함으로,

겉옷 대신 맨몸의 용기로.

그것이야말로

해본 자가 가진 유일한 증거다.

에필로그 - 그날의 나는, 정말 해봤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자주 묻던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가 왔다.

“해 보긴 해봤어?”

그 순간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내 안에서 나온 대답은 이거였다.

"응. 해봤지.

그때의 나는 정말 해봤어."

잘했냐고?

그건 모르겠다.

결과가 어땠냐고?

말해 뭐해, 대단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의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다 써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게 나한테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잘해내야 의미 있다”, “성과가 없으면 헛수고다”라는 말에

익숙해져 버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최선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끝내 자기 삶을 살아낸다는 걸.

나는 지금 이 책을 덮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격려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다.

그저… 묻는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해 보긴… 해봤어?”

✨ 에필로그. 말 안 해도 안다

책장을 덮는 이 순간, 나는 어떤 화려한 마무리도 남기고 싶지 않다.

격려의 말도, 다짐을 강요하는 말도 아니다.

그저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만이 남는다.

“해 보긴… 해봤어?”

이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해본 사람은 스스로 안다.

몸과 마음에 남은 흔적이,

밤마다 되살아나는 기억이,

그가 진짜로 해봤다는 증거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그 눈빛에서, 그 걸음에서, 그 호흡에서.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구분된다.

나는 독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믿는다.

해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고,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 그 길에 설 것이다.

그러니 이 책을 덮는 지금,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오직 이 울림뿐이다.

“말 안 해도 안다.

그 사람은 해봤다는 걸.

그 사람은 아직 안 했다는 걸.”